

광주시-LH 25억원대 '물 전쟁'

LH, 급수 시설비 이중부담 행정소송...市 "명목 다르다" 市 패소 뎀 재정 악영향...민간 건설업자 소송도 줄이울 듯

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5억원대 '물 전쟁'을 치르고 있다. LH가 급수 시설비를 이중부담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16일 광주시를 상대로 '수도급수'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소송 규모는 25억 3935만원이다.

LH는 택지개발 때 상수도 공급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을 지불했는데, 또 다시 개별 세대별로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중복부과'라는 주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과 해당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은 명목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수도법에 따라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가압장·배수지·송수관 등 급수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광주 수완지구·선운지구·효천지구 등을 개발한 LH는 사업지구당 30억~50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낸 것

으로 전해졌다.

시설분담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해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검침할 경우 부과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호(가)당 25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LH는 택지개발 때 상수도 사용에 필요한 시설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지불했고, 이후 아파트 건설 때는 계량기마저 시공사가 설치하는데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택지 개발을 하면 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압장·배수지·송수관 등 급수시설에 드는 비용으로 지구당 30억~50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냈다"며

"추가로 시설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데 개별 아파트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맞대응에 나섰다. 만약 패소할 경우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LH는 수완·선운·효천지구의 LH 아파트에 한정해 소송을 냈지만, 광주지역 모든 택지구 내 아파트가 같은 상황여서 패소할 경우 당장은 수백억원, 장기적으로는 수천억원의 재정 수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민간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리 논쟁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산강 죽산보 물고기 떼죽음

용존산소량 충분해 원인 미상...광주환경연합 조사 촉구

영산강 죽산보 주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환경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을 들어서 영산강에서 확인된 3번째 어류 집단 폐사로, 이전 2차례 집단 폐사와 달리 용존산소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외부 오염물질 유입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요구된다.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영산강 죽산보(나주시) 하류 2km 지점에서 물고기가 100여마리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다. 환경당국은 길이 5~25cm 짜리 붕어와 누치 등 물고기 100여 마리를 수거한 뒤 그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남해양수산연구원에 보내 질병 및 독극물 중독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특이한 것은 이날 발생한 어류 집단 폐사는 이전 2차례의 경우와 달리 물속 용존산소량이 9.0mg/l 이상으로, 어류가 생존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4월 승촌보 인근에서 붕어 등 50여마리가 집단폐사한 사고와 지난 6월 서창교에서 붕어 등 700여마리가 발생했던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엔 용존산소량이 0.1~3.0mg/l 로 분석돼 어류 폐사의 원인이 용존산소량 부족으로 파악됐었다. 통상 용존산소량이 3.0mg/l 이내로 떨어지면 물고기는 폐사한다.

이와 관련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4대 강 사업 이후 영산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물 흐름이 호수처럼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원인 모를 물고기 집단 폐사 지난 23일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죽산보 하류 2km 지점에서 붕어와 누치 등 물고기 100여 마리의 사체가 강물 위로 떠올랐다. 사진은 이날 떼죽음 당한 채 발견된 누치의 모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전남 중·고 교사 420명 선발

11월 9~13일 온라인 접수

광주·전남 교육청은 2016학년도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420명을 선발한다.

광주지역 공립학교 선발 인원은 ▲국어·수학 각 5명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역사·지리 각 2명 ▲도덕·윤리 6명 ▲체육 13명 ▲영어 5명 등 82명(장애 5명 포함)이다.

전남에서는 공립의 경우 ▲국어 20명 ▲수학 30명 ▲물리 17명 ▲역사 20명 ▲체

육 40명 ▲영어 30명 등 335명(장애 22명, 도서 3명)이고 사립학교 선발 인원은 3명(영어 2명·수학 1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내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한다.

1차 시험은 12월 5일, 2차 실기 시험은 내년 1월 13~14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7 해질 17:45
 일출 17:03 일몰 04:56

구름 낀 하늘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 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림	11/21	보성	구름많음	9/19
목포	흐림	11/20	순천	구름많음	12/21
여수	구름많음	15/18	영광	흐림	9/21
나주	흐림	8/21	진도	구름많음	10/20
완도	구름많음	12/20	전주	흐림	11/21
구례	구름많음	7/21	군산	흐림	11/20
강진	구름많음	11/20	남원	흐림	8/20
해남	구름많음	9/20	축산도	흐림	15/19
장성	흐림	8/2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부	면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2.0	동~남동	0.5~1.0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2.0~3.0	동~남동	1.0~2.5
	면바다(서)	북동~동	1.5~3.0	동~남동	1.0~2.5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보통
- 산불 낮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36	06:07
	13:06	18:07
여수	밀물	썰물
	07:57	01:38
	20:18	13:57

◇주간 날씨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11/1(일)	2(월)
☁	☁	☁	☁	☁	☁	☁
14/19	11/16	10/17	9/16	8/16	7/16	7/16

12월 눈 많이 내리고 춥다

광주기상청 날씨 전망...내일 비온 뒤 기온 '뚝'

올해 초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섭씨 20도 중반을 오가던 낮 기온도 27일 내리는 가을비와 함께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평년(9.6도) 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48.2mm) 보다 많겠다.

12월은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기온은 평년(3.9도)과 비슷하거나 낮고, 강수량은 평년(26.1mm) 보다 많거나 비슷할 것

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에는 찬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1.5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31.3mm)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한편 기상청은 27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5~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내륙지역은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치면 광주·전남 지역은 아침 최저 6~13도, 낮 최고 13~18도의 기온이 이어지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경영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선정

2017년 3월 개교

광주 경영고가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25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마이스터고로 광주 경영고를 선정하는 등 전국 3개 고교를 마이스터고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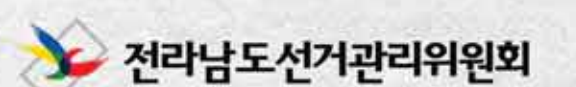
광주 경영고 외에 김제자영고는 중자산업 분야, 대구자연과학고는 도시형 첨단농업 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됐다.

광주 경영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라 정부는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자체 확충 등을 지원하고 광주시는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구축을 위해 매년 2억원씩 3년간 6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후원에 사랑을 담아

밉다고 멀리하고 싫다고 피하기보다
 내가 낳은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처럼
 내가 뽑은 정치인에게 후원의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바르고 깨끗한 정치
우리가 만듭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정치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정치후원금'을 쳐주세요

문의전화 (광주) 062-382-7607, 382-5385 (전남) 061-288-8143, 288-8144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